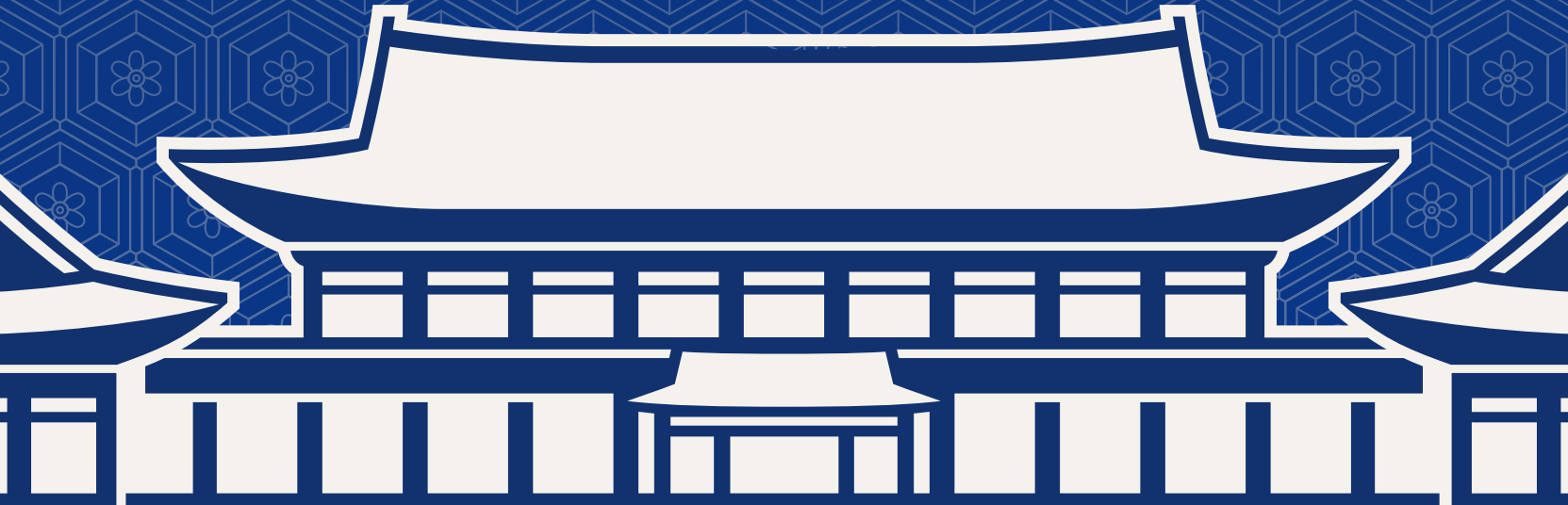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CONTENTS

본 프레스킷은
대통령 연설문을 발췌해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소개 및 이력	04
2026 신년사	08
2026 신년 기자회견	12

Part 1. 국민통합	
2026년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설 명절 인사	18

Part 2. 혁신경제	
APEC CEO 써밋 특별연설	22
APEC 정상회의 세션1	24

Part 3. 균형성장	
울산 타운홀미팅	28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	29
불공정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30

Part 4. 문화예술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	34

Part 5. 외교안보	
한중 비즈니스 포럼	38
중국 국민 방문 관련 SNS 메시지	40
한일 공동언론발표	44

대통령 소개 및 이력



인적 사항	성명	이재명 (李在明, Lee Jae Myung)
	생년월일	1964년 12월 22일
	가족	김혜경 여사, 2남

학력	1978. 8.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1980. 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1986. 2.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	사법연수원 수료 (18기)
	1989	법률사무소 개업, 변호사 개업
	198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1990~1994	이천노동법률상담소 및 광주노동법률상담소 소장
	1994~2005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
	2010~2018	성남시장
	2018~2021	경기도지사
	2022~2025	제21, 22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 을)
	2022~2025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	대한민국 대통령

저서	2018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2022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2022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
	2025	『결국 국민이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미래는 과거보다 낫고,
현재보다도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재명은 희망과 회복력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공장의 소년 노동자에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한 그의 여정은 진정성과 공감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갈망하는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운동과 노동·인권변호사 활동, 그리고 진보적 공공행정을 두루 경험한 그는 평등과 기회,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향한 그의 비전은 정의·기회·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염원을 담고 있으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1964년 12월 22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이재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움을 향한 그의 여정은 남다른 의지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6년 삼계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성남시로 이주했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13세에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연령에 미치지 못해 정식 계약조차 맺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 환경을 견뎌야 했지만, 그는 배움이 곧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힘들고 고된 노동 속에서도 독학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1986년 23세의 나이에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변호사로서 자신의 능력을 부나 권력이 아닌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권 변호사의 길에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1989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동 상담소, 반부패 활동 등 시민 운동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사회 정의와 평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후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가청렴위원회 성남 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하다 더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정치에 뛰어든 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을 역임하면서 성남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 최대 인구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지사로서 진보적이고 복지지향적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행정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과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2024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2025년까지 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국민들의 폭넓은 신뢰와 지지를 얻으며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재명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등산·바둑·낚시·산책을 즐깁니다.

열렬한 독서광이기도 한 그는 인생의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운명에 맡긴다.”라는 좌우명처럼,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2026. 1. 1.

2026년 신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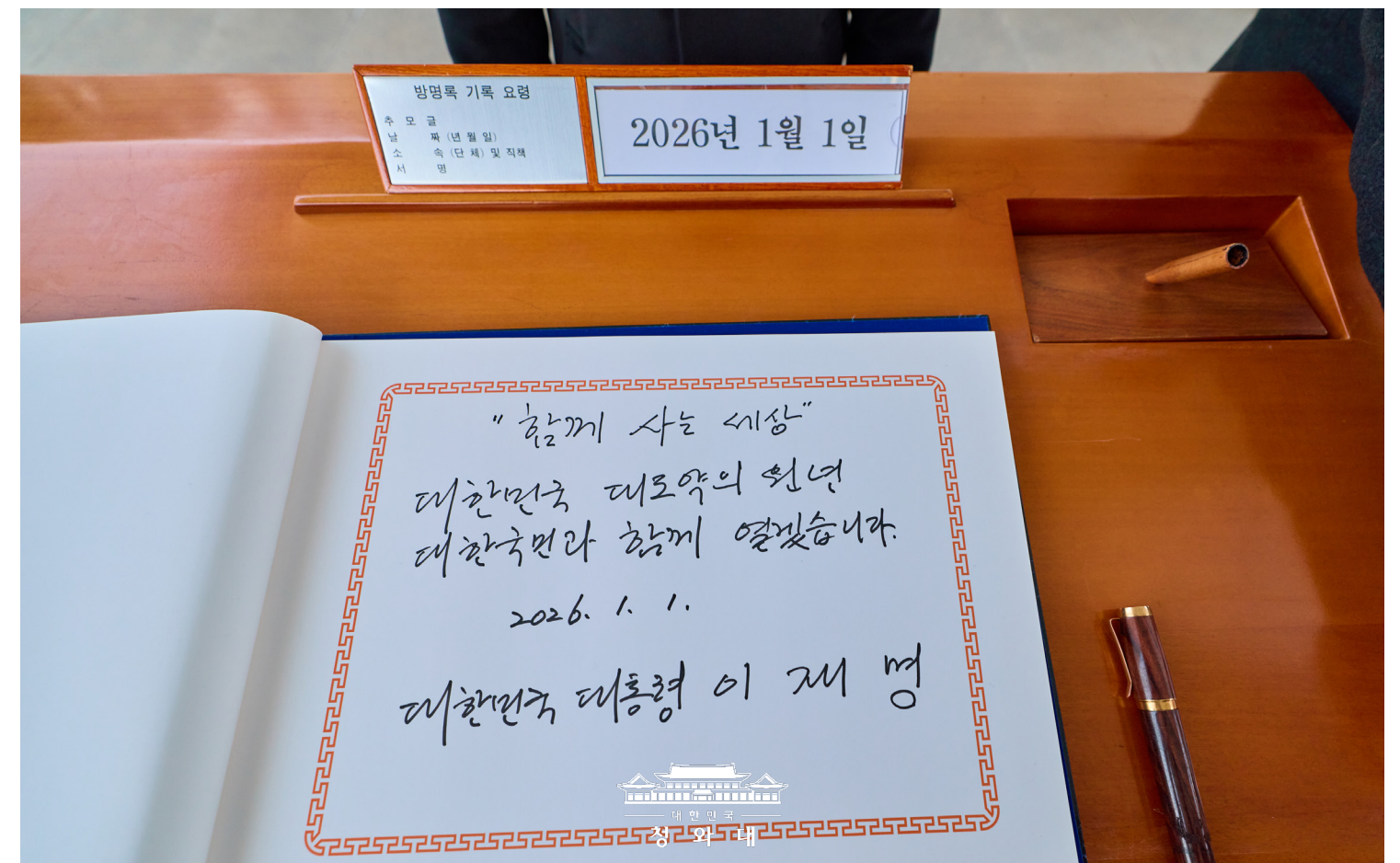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천억 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뚝뚝 나아가겠습니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 신년 기자회견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둘째,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들입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3천5백 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습니다.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조 6천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습니다.

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PART

1

국민통합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없이 걸어가겠습니다.

2026. 2. 17.

2026년 이재명대통령 부부 설 명절 인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PART

2

혁신경제

협력과 연대의 2025 APEC, 미래로 도약할 모두의 무대로 만들어갑시다

2025.10.29.

APEC CEO 서밋 특별연설

“연결”은 단절의 시대를 잇는 연대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 고리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공급망 협력’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혁신”은 미래 성장의 기반이자 핵심 수단입니다.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혁신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번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경제성장 and 발전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하나 되는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전쟁의 잣더미에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리고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위기를 헤쳐갈 영감과 용기를 선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입니다

2025.10.31.

APEC 정상회의 세션1

APEC 출범 후 회원들의 국내총생산은 5배, 교역량은 무려 10배 늘었으며 그 단단한 공동번영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자라났습니다. 협력과 연대, 상호 신뢰의 효능을 증명한 APEC 정신이 이곳 경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자유무역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입니다.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PART

3

균형성장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2026. 1. 23.

울산 타운홀미팅

수도권 집중 전략은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더 이상 여유가 없고, 지방은 기회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 곳에 몰아주는 전략에서 벗어나,
여러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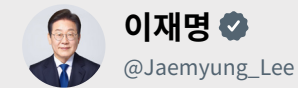
변화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2026.2.13.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 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2025. 6. 11.

불공정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그간 우리 주식시장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모두 혁신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불법을 저질러 돈 버는 일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면,
그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PART

4

문화예술

문화예술 지원, 문화강국 실현의 첫걸음입니다

2025. 6. 30.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

문화의 힘, 즉 문화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정서가
과연 세계인들에게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한국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는 것을 보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세계도 좋아하는 시대가 열렸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더 이상 군사력이나 경제력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문화의 힘, 즉 문화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김구 선생께서 그토록 염원하셨던 '문화강국'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화예술인이 생계와 창작 사이
힘겹게 균형을 잡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여러분의 창작에 날개를 달아드릴 차례입니다.
먹고사는 걱정 없이 오롯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PART

5

외교안보

벽란도 정신으로 다시 잇는 한중협력의 항로

2026. 1. 5.

한중 비즈니스 포럼

고려의 벽란도는 국제교역의 중심지로
송나라와의 해상 교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항구였습니다.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나루'라는 뜻의 이름처럼
벽란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양국의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가 오가던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고려는 이곳을 통해 인삼과 맥, 그리고 고려지를 송나라에 수출했고
송나라는 고려에 서적과 도자기, 차를 전하며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오늘의 한중 협력도 산업 혁신과 안정적 공급망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잇고, 각자의 시장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협력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에서의 혁신과 협력입니다.
한국 정부는 제조AX, 즉 제조 전반에 AI를 접목해 기업이 기술혁신과
생산 고도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양국이 혁신을 통해서 제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의 정책과 기술을 참고하며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활발한 문화교류입니다.
최근 양국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상호 방문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콘텐츠, 게임, 공연, 문화 플랫폼 등
생활 서비스 전반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콘텐츠 분야 협력은 기업 간 신뢰를 쌓고 제조업과 소비재 투자,
신시장 개척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연결 고리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한중 경제인 여러분,
'물을 건너는 데는 배가 필요하지만,
배를 띄울지는 사람이 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중 협력의 배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도 양국 기업이 협력의 항로를 넓혀가는데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좋은 이웃은 천만금을 주고서라도 얻을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천만금보다 귀한 서로의 이웃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 중국과 함께 새로운 30년을 향해

2026. 1. 6.

중국 국민 방문 관련 SNS 메시지

2026년 새해 첫 해외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과 중국 모두에게 올해 첫 국민 외교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서로에게 소중한 외교적 자산임을 재확인하고, 정상 간 만남을 매년 최소 한 차례 이상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도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서도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가꾸기 위해 힘을 모으고, 불법 조업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元年)'으로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민생과 평화를 두 축으로 삼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3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2026. 1. 13.

한일 공동언론발표

우리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고,
특히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한 해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올해가 한일 양국이 그리고 한일 양 국민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